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연이 되어 마산의 경남대학교 학생운동, 마산 지역의 여러 진보적인 사람들과도 동지적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초반, 전두환이 집권하여 다시 모두들 제적당하고 학교로부터 쫓겨났을 때, 이미 전과가 누적되어 대기업 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얻기도 힘든 나는 1981년 초부터 1985년 말까지 5년 간을 마산, 창원, 부산 일대에 살면서 마산의 동지들과 더불어 <마산문화>라는 잡지도 내고, 사회주의적 학습도 하고, 소그룹도 조직하면서, 아니 여러 가지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나와 비슷한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드문 선택이었고, '운동권 바깥에서 대중과 더불어 살면서 무언가를 모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내 나름의 독특한 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1986년 초 서울로 보따리를 싸들고 왔을 때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후 나는 '운동권'의 상투적 언어와 사고에 물들어 있던 나의 학생운동 시절을 반성하고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나서게 된다.

내 인생의 필연적 선택과 서울대 최장기 수배생활



권형택_ 서울대 국사학과 74학번.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부의장, 민주정취국 민운동본부(국본) 청년 학생위원장, 민통련 사무차장,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 총장(현), 민청련동지회 회장(현)

74학번으로 서울대 문리대에 입학해 공릉동에서 교양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서 국사학과로 진학을 했다. 당시 문리대는 사회대에 비해 감성적으로 분방한 편이었다. 법대와 상대가 이론학습에 주력했던 반면 문리대는 이론학습을 통한 조직적 전통이 강하지 않았고 감성적 투쟁이 앞서는 분위기였다. 나는 1학년 때부터 농촌법학회에 가입해 서클 선배들을 보면서 1학년 말부터 시위에 가담하였는데 이때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텄던 것 같다. 입학할 때 민청학련 사건을 보면서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였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인혁당 8명 사형과 김상진 할복자살 건 등으로 학내시위가 격렬해졌다. 그래도 5월 13일 긴급조치9호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삼엄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소위 생사를 건 싸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5.13 이후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긴급조치는 우선 조문 자체가 오싹했다.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 여론을 완전히 봉합해 버린 긴급조치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한 것은 오돌돌 시위 때이다.

그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위대를 따라 나섰다. 최루탄 한 방 터지지 않았지만 일정한 보조로 로마병정처럼 두벅두벅 밀고들어오는 경찰병력은 시위대의 기를 질리게 하기 충분했다. 시위대가 도망을 가니 예전처럼 급히 쫓아오는 게 아니라 본관 옆에 이를 때 같은 속도로 행군하더니 거기서 주위로 좌악 퍼져 일시에 시위대를 검거해 버렸다. 계엄군 진주 상황 같은 삼엄한 분위기를 실감한 날이었다.

긴조9호의 위세는 76년 12월 8일 데모 때까지 계속되었다. 학내에는 기관원들이 학생들 보는 데서 버젓이 상주했고, 본관 5층에는 안전기획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학내 실태를 감시하고 학생들을 면담, 회유, 매수했다. 주요 운동권들을 불러다 회유를 해대는데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가게 되면 서클 동료들에게 공개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도 했다. 회유되어 넘어간 사례도 간혹 있었으나 많은 수는 아니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학생들 사이에 보안을 매우 중시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 모임 연락도 은밀하게 하고, 가명을 쓰는 일도 많았다. 간혹 늦게 서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같은 불문율을 무시하고 마구 행동했다가 프락치로 의심받기도 했다. 1977년 11월 11일 도서관 점거 시위의 주동자 6인 가운데 한 명인 양기운도 한때 의심받은 일이 있다. 양기운은 체육학과 3학년 때 나와 같은 서클인 농법화에 가입했는데 뒤늦게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발언도 많이 하곤 해서 내게 양기운과 접촉 말라는 권유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11·11 데모 주동 사실도 알린 것이다. 그때 양기운과 나는 서로 내가 하겠다, 너는 남아 후배를 지도하라,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참여해 시위를 주동하게 되었다.

오들들 시위 이후 잠잠하던 학교는 77년부터 분위기가 뜨기 시작했다. 76년 가을 축제 때 농악 탈춤 뒷풀이 중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문까지 진출했으나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77년 분위기를 이끌어낸 것은 76년 12월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이 구속된 서울법대생시위 사건이었다. 후배들은 당시 3인의 재판과 장기포 재판 등을 조직적으로 방청하면서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시위투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서클들이 운동을 주도하던 때에는 장기투쟁론에 입각해서 민청학련사건 등의 대정권투쟁을 다소 폄하하던 분위기였다.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근본

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과 김상진 할복 등으로 감성적 울분이 극대화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긴조9호라는 험악한 상황 속에 내적 패배감만 키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12.8사건은 그 패배감을 극복하면서 장기전보다 직접적인 시위투쟁을 강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77년 10월의 사회학과 심포지엄 사건은 누군가 불만 붙이면 바로 타오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어난 자연발생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10월 7일 사회학과 주최로 '1920년대 한국민족운동 고찰' 심포지엄이 26동 대형 강의실에서 열렸다. 5백여 명이 모이자 학교 측에서 행사 연기를 종용해 왔으며, 이에 반발해 농성이 일어났다. 농성은 구호가 제창되면서 시위로 발전했고 강의실 밖의 학생까지 합세했다. 경찰이 출동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농성 중이던 학생 4백여 명을 관악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때부터 서울대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

11월 11일의 도서관 점거 시위는 심포지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는 그날 데모에서 서클 후배인 최상일(현 MBC PD)이 구속된 데 크게 자극을 받았다. 11·11시위는 긴급조치9호가 발령된 이래 5분 이상의 시위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도서관을 진지로 삼아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가까이까지 농성을 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국사학과에서 74학번인 나와 김정택, 75학번인 연성만, 앞서 언급한 양기운, 농경제학과의 장기영, 여섯 명이 주동을 하였는데 나를 제외하고는 전원 연행이 되었다. 나는 교직원에게 의해 도서관 경비실에 억류되었으나 유리창을 깨고 소리를 질러 부근에 있던 학생들에게 구출되었다. 나는 그 길로 도망을 가 긴조9호가 해제될 때까지 잡히지 않고 도피생활을 했다.

학교를 나오니 갈 데가 없어 우선 은세창(국제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중)에게 의탁했다. 선배 하숙집에서 고시생으로 위장해 두어달 지내면서 처음엔 후배들과도 접촉했으나 나중엔 피해를 줄까봐 일부러 피해 다녔다. 해를 넘겨 78년에는 고향 선배가 하는 양계장으로 가서 인부로 일하다가 경찰의 추적 기미가 느껴져 다시 상경했다. 서울에선 영문과의 전재주, 외대에 다니던 소준섭과 만리동고개에서 방한 칸을 얻어 함께 자취를 했다. 이때부터 79년 말까지 동대문이며 미아리며 창신동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계속했다. 도피 중에는 출판사를 다니기도 하고 번역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했다.

성남에서 고교 선배와 생활하다가 논장서적을 한 박강희와 그의 형 박경희의 집에 의탁했

는데 수사관의 손길이 뻗쳐 오용석 형 집에 1, 2개월 피신했을 때다. 어느날 귀가하는데 용석 형의 누님이 급히 나와 “수사관들이 몇 명 다녀갔다”고 하였다. 그 길로 맨몸으로 도망해 버스정류장 옆의 자주 다니던 기원 주인에게 버스를 얻어 과 선배인 안병욱 교수 집으로 갔다. 거기서 이틀을 묵고 당시 2개월 하숙비에 해당하던 7만원을 얻어 나왔다. 당시는 부마항쟁으로 유신이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며 남민전으로 아는 사람 대부분이 드러나 있던 터라 어디 마땅히 의탁할 곳도 없을 때였다. 꼭꼭 숨어야겠다 싶어 명지대 앞에 고시생으로 위장해 하숙을 들었다. 법학 책 몇 권을 사서 독서실을 하릴없이 오며가며 한 시절이었다.

도망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민폐도 많이 끼쳤다. 친하게 지낸 김포의 친구 집에 수사관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야학하던 고대 친구가 찾아온 것을 나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친구 집이 수색당했고 친구 방에서 지하유인물이 나오는 바람에 둘 다 구속이 되었다. 오용석 형도 안기부서 5일간 두들겨 맞고 나왔으며, 전재주와 박강희, 박정희 형제도 3일간 잡혀 있다가 10.26 나고 모두 나왔다.

10.26이 나던 때 나는 하숙집에서 자고 있었다. 주인집이 남묘호랑개교를 믿어 날마다 주문을 외웠는데 그 소리에 섞여 장송곡과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 한두 주 단위로 신동수 형을 만났는데 그날도 동대문도서관에 형을 만나러 가서 야 ‘유고’의 진상이 뭔지를 들었다.

학생운동할 때 우리 대부분은 학내 시위를 통해 스스로를 정리하고(소위 존재 이전을 하고), 징역 살고, 징역 나와서는 현장에 들어가 민중을 의식화·조직화하는 본격투쟁을 벌이는 것을 인생 진로로 생각했다. 나는 징역은 안 갔지만 수배 생활을 오래 했다. 80년 5·17 후에도 다시 수배되었는데 당시 수배자들은 모두 군대에 보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80년 9월에 입대해 83년 4월에 제대를 했다. 감옥 간 사람들은 모두 군 면제를 받았지만 나는 감옥 살이 이상의 장기 수배생활을 했으면서도 군대까지 가게 돼 이중고를 치러야 했던 셈이다.

제대 뒤에는 현장은 아니라도 사회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생각 속에 동양시학과 75학번 이우재와 ‘공동번역실’이란 이름으로 사무실을 열어 후배들과 생계를 해결하면서 사회운동을 모색해 나갔다. 84년 9월 민청련을 결성해 사회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민통련 등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회한이 아주 없진 않다. 77년, 같은 국사학과의 김경택이 시위를 함께 하자고 권유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 인생의 진로를 좌우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국사과 은사이신 김철준(작고) 선생님 댁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뉘 훗날 나의 이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며 결심을 굳혔다. 후회는 없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문적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때 공부를 계속 했더라면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을 되돌려 놓는 다 해도 1977년 가을, 그날의 선택은 내 인생에서 필연적 선택이었다.